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 양승철 변호사입니다.
졸업생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힘든 수험 생활 끝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10년에 입학했는데,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축하를 준비하면서 2010년에 촬영한 제 입학식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정겨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정년퇴임을 하신 교수님의 모습도 보였고, 지금의 후덕해져버린 옛된 모습의 동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여러분이 오늘을 추억하는 날도 오겠지요.

지난 12년 동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내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기 합격률 100%를 시작으로 2018년 발표된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91%를 넘었고 이는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외부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연암관 신축을 시작으로 신축 기숙사도 곧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외형적, 내용적인 면에서 최상의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금의 결과를 내기까지 교수님과 재학생,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힘든 학업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공부량, 수많은 시험, 치열한 경쟁 등을 거치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발전하는 모습에 스스로를 대견해할지도 모릅니다. 앞

으로 3년간 여러분은 가장 치열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법조인의 모습으
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잘 지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
니다. 또한, 동기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
목이고, 나중에 법조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가장
친한 친구를 입학식에서 만났습니다. 제 입학식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는
데,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기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600여명에 이릅니다. 로펌, 법원,
검찰, 경찰, 관공서, 사내변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고, 개업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여러분들이 3년의 힘든 과정을 무사
히 통과하고 법조에 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꿈을 오랫동안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멋진 법조인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 꿈에 닮아 가시기를 진심
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